

##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발견을 위한 포럼 발표 및 필리핀 가톨릭유산의 세계유산과 마카오 세계문화유산지구 사례 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세계유산 및 교회유산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임

### I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4. 8. 4 ~ 9.(4박 6일)
- 출 장 지 : 필리핀, 마카오
- 출 장 자 : 유병덕 책임연구원(센터장), 정래진 책임연구원,  
노정숙 위촉연구원, 이상희 비상임연구위원
- 출장 동행기관 및 명단
  - 천주교 교구 : 김성태 신부(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서울대교구 한국교회사연구소장)
  - 이 코 모 스 : 이해은 교수(이코모스 종교제의분과 위원장),  
김정은 대표(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
- 세부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8.4. (일)	내포 인천	인 천 마닐라	13:00~17:30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동 20:15~23:50 마닐라로 이동, 도착	
8.5. (월)	마닐라	카가얀 데 오로	04:05~09:00 카가얀 데 오로로 이동 09:00~19:30 호세 A. 카반탄 주교좌 성아우구스틴 대성당 방문 클라베리아시 메탈루나 S. 아브로가 시장과 간담회 칸텔라리아 성모성당 견학	
8.6. (화)	카가얀 데 오로	마닐라	07:00~15:00 자산 유적지와 요새 견학 자산 성당 복합 관광 & 간담회	

			<p>“나라(Nara) 문서의 진정성 30년을 기념하며”</p> <p>15:00~20:00 마닐라로 이동</p>	
8.7. (수)	마닐라		<p>08:00~12:00 유산 포럼</p> <p>▶ 발표 및 공개 토론 [산토토마스대학 보나벤투라 가르시아 파레데스 O.P.빌딩]</p> <p>- ‘공소’ 한국의 천주교 공동체의 세계유산적 가치 Fr.김성태 /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 소장 이상희 교수 / 충남역사문화연구원</p> <p>- 필리핀 교회 유산의 상태 Fr.밀리안 테드 D. 토랄바 / 교회문화유산을 위한 필리핀 주교위원회 가톨릭주교회의 사무국장</p> <p>- 산토도밍고 재건축: 2차 대전 후 필리핀의 맥락과 목표에서 Rev.메빈 로마그 / 필리핀문화유산위원회 도미니코회 회원</p> <p>- 불준교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Fr.브리안 브리콜리 / 세부대교구 교회유산위원회 의장</p> <p>13:00~16:00 성당 견학</p> <p>- 산토 도밍고 성당</p> <p>- 산 아우구스틴 성당(WH) 견학</p> <p>16:00~18:0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성지] 방문</p> <p>-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p> <p>-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박물관</p>	
8.8. (목)	마닐라	마카오	<p>18:00~20:00 마카오로 이동</p> <p>※ 항공기 3차례 연착으로 당초 예정보다 출발 시각 지연</p>	
8.9. (금)	마카오	인천	<p>09:00~15:30 마카오 [세계문화유산지구] 답사</p> <p>- 몬테 요새(박물관), 기아요새,</p> <p>- 성 바울 성당 유적, 나차 사원, 마카오 성벽</p> <p>- 성안토니오 성당, 까사 정원, 대성당(마카오 주교좌 성당), 로우가우 맨션, 성도미니코 성당</p> <p>- 세나도 광장, 레알 세나도, 인자당(자비의 성채)</p> <p>18:00~22:50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 귀국 후 해산</p>	

## II

# 주요 추진사항 및 조사 내용

### ① 카가얀 데 오로(Cagayan de Oro)

#### (1) 성 아우구스틴 대성당 방문

○ 일시 : 2024. 8. 5.(월) 09:00

○ 주요내용

- ① 성당 건물은 1571년에 세워진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 ② 벽돌과 돌로 지어졌으며, 필리핀 바로크 건축의 가장 훌륭한 예시 중 하나임
- ③ 후안 루나의 그림 ‘최후의 만찬’ 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역사적 유물들의 본거지로 꼽힘

[성당과 비치 자료 설명 사진]



#### (2) 클라베리아시 메탈루나 시장과 간담회

○ 일시 : 2024. 8. 5.(월) 14:00

○ 참여자 : 클라베리아시 시장 외 포럼 참가자 전체

○ 주요내용

##### ① 메탈루나 시장 환영 및 소견 발표

- 클라베리아시 메탈루나 시장은 시장의 정치적 소신, 아울러 문화유산에 대한 마음가짐과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발표
- 문화유산의 보존과 더불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일조
- 무형유산의 등재는 자랑스러운 것이나, 조금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 것도 필요

## ② 간담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주제로 유산의 효율적 보존 방안과 관련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필리핀, 한국, 일본 등의 경험 공유

[방문객 환대 모습과 시장 환영사]



## [3] 자산 유적지와 요새 견학, 자산 성당 워크숍

- 일시 : 2024. 8. 6.(화) 07:00~15:00
- 유적 안내 및 설명 : 제라도, Fr.조나스
- 주요내용

### ① 자산 유적지와 요새, 자산성당

- 유적지와 요새는 터만 남아 있는 상태이나,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함
- 자산 성당은 예수회에 의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지어진 필리핀의 국립 사적지 중 하나이며,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자연적 문화유산이자 유산 구조 중의 하나임
- 종탑과 함께 100년 된 종이 남아 있음

### ② 자산 성당 워크숍

- “나라(Nara) 문서의 진정성 30년을 기념하며” 라는 주제 발표
- 자산성당의 보존 방안에 대한 참석자 토론

발표자	주제
아야코(일본 큐슈대학 부교수)	일본의 가톨릭교회의 세계유산 성지
에릭 제라도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집행이사)	살아있는 유산의 맥락에서 본 자산 성당 보존 방안

## [자산 유적지와 워크숍 장면]



## 2 마닐라(Manila)

### (1) 유산 포럼

- 일시 : 2024. 8. 7.(수) 08:00~12:00
- 장소 : 산토토마스대학 보나벤투라 가르시아 파레데스 O.P.빌딩
- 주요내용

① 총 4건의 연구 및 사례 발표와 공개 토론으로 진행함

② 연구 및 사례 발표

발표자	주제
김성태(내포교회사연구소 소장신부) 이상희(목원대학교 교수)	‘공소’ 한국의 천주교 공동체의 세계유산적 가치
밀리안 테드 (필리핀주교위원회 가톨릭주교회의의 사무국장)	필리핀 교회 유산의 상태
메빈 로마그 (필리핀문화유산위원회 도미니코회 회원)	산토도밍고 재건축: 2차 대전 후 필리핀의 맥락과 목표에서
브리안 (세부대교구 교회유산위원회 의장)	불준 교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③ 공개 토론

- 한국 천주교 독특한 역사적 전개과정과 유산을 ‘공소’ 개념으로 묶어서 연속유산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고무적이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인정됨



- 다만, 향후 본격적인 한국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연구진들이 제시한 핵심 개념이자 가치인 ‘공소’의 개념과 의미, 형태에 관해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다른 나라와 구별될 수 있는 항목을 찾고, 그것이 OUV의 기준[Criterion] III과 VI에 적합한 것인지를 살펴 그 기준에 타당하게 구성해야 함. 그래야 OUV가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음
- 일본 등재 유산의 경우,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아도 ‘의미를 살려 내어’ 유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공소에 대해서도 OUV의 기준(III, VI)과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절충해야 함

#### [한국의 연구자료 발표와 공개 토론]



## [2] 성당 견학

### ① 산토 도밍고 성당 : 케손 시에 위치하는 국가 지정 성지

-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케손시티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국가 성지이자 교구 교회
- 1587년 마닐라시의 인트라무로스에 지어졌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위치로 옮겨짐

#### [산토 도밍고 성당]



- ② 산 아우구스틴 성당 : 마닐라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작은 성당
-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로마 가톨릭교회 성당으로, 1571년에 세워진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
  - 벽돌과 돌로 만들어졌고 필리핀에서 바로크 건축의 가장 훌륭한 사례 중 하나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후안 루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역사적 유물 소장

[산토 도밍고 성당과 산 아우구스틴 성당]



### [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성지

- 일시 : 2024. 8. 7.(수) 16:00~18:00
- 성지 안내 및 해설 : 성 안드레아수녀회 Sr. 레지나
- 주요내용

#### ① 필리핀 롤롬보이 [한국 김대건 신부 성당 성지]

- 필리핀 블라칸 지역의 롤롬보이에 세워진 성당과 성지
-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등 세 명의 신학생이 1837년 8월 서울에서 순명과 봉사를 서약하고 6개월간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마카오에 도착, 두 달 만에 아편문제로 혼란에 빠진 마카오를 피해 필리핀 롤롬보이로 이동
- 성인은 1839년과 1842년 두 차례에 걸쳐 만 1년 이상을 이곳에서 생활 하였고, 현재 성인의 성지가 조성된 곳이 도미니코수도원 터임
-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롤롬보이 사람들 사이에선 ‘한복을 입은 목 없는 귀신이 나오는 흉가’로 불리며 방치
- 1986년 고 김수환 추기경, 고 오기선 신부 등이 김대건 성인의 동상을 세우고 2002년부터 성안드레아 수녀회가 성지를 매입, 조성하면서 ‘목 없는 귀신’ 소문은 사라지고 롤롬보이 주민들도 김대건 성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

## ② [한국 김대건 신부 성지] 기념박물관

- 안드레아 수녀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작은 박물관
- 그곳에 머무는 동안 오고 갔던 서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절절했을 분위기를 전해주며 후손들에게 그 진실을 전하고 있음
- ‘갓을 쓰고 성경을 들고 있는 청년 김대건’ 석상과 생가의 모습 등을 미니어처로 비치, 한국 전통의 분위기를 이국땅에도 느낄 수 있도록 함

## ③ 이국땅에 의연히 서 있는 한국인 성인 성지

- 필리핀, 불라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교구 성지로 승격
- 최초의 한국인 사제 경 김대건 안드레아를 주보성인으로 모시는 필리핀 불라칸 성당이 교구 성지로 승격된 것임(2021.01.30.)

[한글로 안내하는 표지와 기념박물관, 생전의 서신]



## ③ 마카오(Macau) 세계문화유산지구

○ 일시 : 2024. 8. 9.(금) 09:00~15:30

○ 주요내용

### ① 지구 내의 유산들

- 마카오 세계문화유산 역사지구 내에는 건축물과 광장 등 30개 유산이 포함되어 있음
- 몬테 요새(박물관), 기아 요새, 성 바울 대성당, 나차 사원과 마카오 성벽, 성 안토니오 성당, 까사 정원, 대성당(마카오 주교좌 성당), 로우가우 맨션, 성 도미니코 성당, 세나도 광장, 레알 세나도, 인자당(자비의 성채)을 비롯하여 22개의 건축물과 광장 8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 ② 지정 이유 : 동서양의 조화

- 나차 사원은 해마다 음력 5월 18일에 나차 축제를 성당 마당에서 실시함. 마카오 성벽은 구시가지 성벽이라고도 하며 동양인과 서양인을 나눴었던 성벽으로, 동서양의 조화가 나타남. 추남보 기법으로 만들어짐. 로우가우 맨션은 전형적인 광둥식 벽돌 건물로, 중국식 건축물에 서양식 양식이 더해짐. 레알 세나도는 포르투갈령 때 서양인인 포르투갈인들이 동양인인 마카오 인들을 위해서 일하던 장소(현재 시청)라는 의미가 담겨 동서양의 조화가 나타났다고 봄
- 지구 내의 유산들에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초기의 틀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
- 인자당(자비의 성채)은 1569년에 지어진 아시아 최초의 서구식 복지시설로 1498년 포르투갈의 엘레아노르 여왕이 리스본에 설립함. 설립자는 여왕이지만 국가나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 현재 여기서 행해지는 금액의 90%는 카지노에서 기부, 즉 사회 기업과의 교류가 강한 것이 특색임

[마카오 요새 축조 배경 설명 사진과 성 바울(세인트 폴) 성당]



## Ⅲ 기대효과

- 천주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교회 유산 포럼에서 이야기 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기준[Criterion] III과 VI에 적합하도록 구성해야 함
-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의 공소도 OUV의 기준(III, VI)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부각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국내외 세계유산 및 교회유산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중요 끝.